

데이비드 C. 뱅크스 교육감으로부터의 뉴스레터



학교 졸업 후 보람 있는 직업을 찾기 위한 방법 만들기

친애하는 뉴욕 시민 여러분,

저희는 뉴욕시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힘찬 미래를 향한 진로를 정해 준비하고 졸업식 단상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사실 이런 상황은 학생들이 학교와 학생들이 진입하게 될 21 세기 구직 시장 사이의 연관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울 때만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. 이번 주, 저는 정확히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.

직업 탐구의 날 뉴욕시 전역의 다양한 업무 환경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인, 뉴욕시의 두 번째 [직업 탐구 주간](#)이 3월 6일 시작됩니다. 약 70개 공립 학교의 대략 2,400명의 학생들이 뉴욕시의 선도적인 고용처들 일부를 방문하여 하루 종일 상호교감을 통해 잠재적 직업군들을 경험하고 가까이서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.

이번 주 전반에 걸쳐 85개 이상의 기업 및 기타 단체들이 임원급 직원이 주도하는 커리어 패널, 회사 투어, 쌍방향 테크놀로지 시연, 업무 기반 그룹 챌린지 및 그 밖의 다양한 경험을 포함한 풀 데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지원해줄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학생들은 Google에서 코딩 세션, Verizon에서 이력서 작성 워크숍에 참여하고, NBA/WNBA 본사에서 퍼스널 브랜딩 및 농구관련 사업에 관해 배우며 National Grid에서 직장 지원 워크숍에 참가하게 됩니다.

직업 탐구 주간은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의 한 예입니다.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[파트너십 포 뉴욕시티](#) 및 뉴욕시의 선도적인 고용주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이번 주의 행사들은 또한 헬스케어, 테크놀로지 및 비즈니스와 같은 고성장, 고 임금 분야에서 학생들이 직장을 구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[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진로 이니셔티브](#)의 일부입니다.

이들 협력기관들을 통해 저희 학생들은 멘토의 역할을 하고, 미래 직장을 구할 때 추천을 제공하며, 학교를 넘어선 폭 넓은 네트워크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업계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됩니다.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이런 투자를 할 때, 저희는 학생들의 미래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뉴욕시와 미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.

저희는 고등학교가 우리 학생들에게 의미와 관련이 있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보람 있는 직업을 찾는 방법이자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줄 수 있다고 느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높이 날아 봅시다.

데이비드 C. 뱅크스
교육감

저희 주간 다시보는 비디오



이 링크로 [에릭 아담스 시장의 주간 비디오](#)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시장실로부터 직접 업데이트 내용을 받아 보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, [여기를 클릭하십시오](#).

더이상 PS+You 이메일 메시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신다면, [수신 취소](#)를 해주십시오.

번역된 자막을 보시려면: "CC" 아이콘 클릭. "Setting" 아이콘 클릭 및 "Subtitles/CC" 선택. "Auto-translate" 선택 및 원하시는 언어 선택